

대북 에너지 지원 규모 막판 조율

6者회담, 北 핵시설 '60일내 폐쇄·봉인' 가다 美 "BDA 1,100만불 해제" 회의 연장될 듯

한반도 비핵화로 나아가는 첫 번째 행동을 논의하는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북한의 초기 조치와 5자의 상응 조치 협상의 핵심 쟁점이 돼 온 에너지 지원 규모를 놓고 '수치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회담장인 다오위타이(釣魚臺)는 종일 협상 열기로 달아올랐고 에너지 지원 규모에 대한 조율이 급물살을 탈에 따라 회담이 하루나 이틀 더 계속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참가국들은 우선 북한의 초기 행동으로는 중국이 돌린 합의문서 초안에 나온 대로 핵시설을 60일 내에 '폐쇄·봉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초기조치로 폐쇄·봉인보다 높은 단계인

'핵시설 불능화(disabling)'까지 한때 거론됐고 북한도 폐쇄를 넘는 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가격 흥정'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초기 행동 대상은 영변 5MW 흑연 감속로와 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봉 제조시설, 공사가 중단된 50MW원자로(영변), 200MW 원자로(태천) 등 5개로 일찌감치 공감대를 확보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폐쇄에 따른 에너지 지원량은 북한 측은 초기에 제네바합의보다 '훨씬 많은 양'을 요구했고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5자의 입장에 따라 접점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제네바 당시의 증유로 환산했을 때 50만과 100만 사이에서 줄타리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가가 급등한 상황까지 고려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에너지 종류는 가장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증유가 최적의 상응조치로 꼽혔지만 '각국이 처한 사정에 따른 지원'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중국의 경우 석유 수출용 파이프라인인 '중조수유관(中朝輸油管)'이 북한과 연결돼 있는 것은 물론, 전력도 수자원을 나눠 쓰는 수풍 등 압력각 수계 발전소로 전력 교역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각각간 논의가 더욱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심도 있게 진행됨에 따라 회의는 13일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동결된 총 2천400만달러 규모의 북한 관련 계좌 가운데 1천100만달러분의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한국과 일본 등에 전달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세이정=연합뉴스



북핵 6자회담 3단계 회담 12일 취재진들이 회담 본회의장인 중국 베이징 다오위타이 정문 앞에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세이정=연합뉴스

쟁점은 '쌀'...韓-美 기싸움 팽팽

■한·미 FTA 7차협상 첫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 첫날은 양측이 치열한 기 싸움을 벌였으나 핵심 쟁점에서 뚜렷한 진전은 없었다.

이날 양측은 투자, 서비스, 금융, 통신·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노동, 의약품 등 7개 분야에서 합의에 나서 일반화물을 이용한 국내 택배와 화물운송 등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통신·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국경간 정보이동 조항 등에 합의했으나 이외에는 이렇다할 결과가 없었다.

◇쌀개방 신경전=김 대표는 "지금 가타로 분류돼있는 235개(농업분과 소관) 품목 중 진짜 민감한 품목은 7차 협상이 끝난 뒤 마무리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봐야한다"고 언급, 농산물 분야의 본격협상은 7차 협상 이후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는 "한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은 미국의 우선순위 과제"라면서 "쌀이 한국에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쌀 시장 접근성의 개선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기 켈트조각 문제도 여전히 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태식 주미대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최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미국의회의 비준은 물론 3월 말 협상타결도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무역구제 '2+2' 절충안=김중훈 수석대표는 개막 첫날 브리핑에서 "핵심쟁점에 대해 수석대표간에 여러 형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 "200명의 한국 대표단이 워싱턴에 온 것은 협상의 진전을 이뤄내기 위한 것이며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는 표현을 썼다.

회의 첫날 나타난 '의견교환'의 형태는 분과협상 개괄적인 무역구제분야에서 양측 수



제7차 FTA 협상이 시작된 11일 오후 미국 워싱턴 코트호텔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우리측 김중훈 수석대표와 미국 커틀러 수석대표가 악수 하고 있다. (사진 위) 같은 날 워싱턴 시내에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과 미국 시민단체 회원들이 함께 거리행진을 벌이는 모습. 연합뉴스

김중훈 "민감 농산물 7차 협상 이후에" 커틀러 "쌀 시장 접근 확대 요청 할 것"

석대표와 분과장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2+2' 형태의 절충 방식이다.

◇7차 협상 사실상 성패 가른다=김중훈 수석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7차 협상은 미국의 무역촉진권한 만료이전에 (한미FTA 협상) 타결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TPA에 따른 현실적인 협상 시한인 3월 말까지 한미FTA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지 여부가 이번에 드러날 것이라는 의미다.

특히 현행 TPA가 6월 말 만료된 뒤에는 상당기간 미 행정부가 협상을 벌일 상황이 안 되는 만큼 한미FTA 협상이 장기간 공회전하면서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7차 협상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미-러 신냉전 서막?

푸틴 "미국이 세계 군비전쟁 부추겨" 게이트 美 국무 "러 무기수출이 문제" 獨 안보회의 MD구축 등 갈등 표면화

러시아가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21세기 초입에 새로운 냉전이 도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동유럽 민주화, 그리고 구소련 해체로 1990년대 이후 동서 냉전 구도가 사라졌으나 러시아가 미국의 독주에 대해 제동을 걸 움직임을 보이면서 새로운 냉전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같은 갈등 기류는 독일 뮌헨에서 9일부터 11일까지 열린 국제안보회의에서 표면화됐다.

국제안보회의에 참석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세계를 더 위험한 곳으로 만들고 있다며 미

국에 대해 이례적으로 날을 세웠다.

푸틴 대통령은 국제안보회의 연설에서 "미국은 경제, 정치, 인권 등 전방위적으로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에 자신의 입장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러시아에 인접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인 체코와 폴란드에 미 사일방어(MD)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계획을 비난하고 어떠한 형태의 나토 확장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푸틴 대통령은 "그들(미국)은 끊임없이 러시아에 민주주의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지만 그들 스스로는 민주주의를 진정으로 공부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신의 재임 기간에 러시아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미국의

비판을 일축했다.

이같은 푸틴 대통령의 노골적인 비난에 대해 미국도 발끈하고 나섰다. 이번 회의에 미국 대표로 참석한 로버트 게이트 국무장관은 미국은 러시아와 냉전을 촉발할 의사가 없으며 "냉전은 한번으로 족하다"고 말했다.

게이트 장관은 러시아가 에너지 자원을 정치적 압력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러시아의 무기 수출은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10여년간 지속돼온 미국 주도의 세계 체제에 대해 러시아가 견제 움직임을 보인 것은 러시아의 자신감이 커지고 있는데 반해 미국의 지도력과 명분이 약해지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이정=연합뉴스

오래 잠 못자면 뇌세포 생산 중단

오랫동안 잠 못 자면 특정 뇌부위의 새로운 뇌세포 생산이 중단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엘리자베스 글드 박사는 국립과학원 회보(PNAS)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오래 잠을 자지 않으면 기억을 형성하는 뇌부위인 해마(海馬)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신경세포의 수가 크게 줄어든다는 사실이 쥐실험을 통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글드 박사는 이러한 현상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코스테론의 증가 때문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고 말했다.

글드 박사는 쥐들은 72시간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정상적으로 수면을 취한 보통 쥐들과 비교한 결과 잠 못 잔 쥐들은 코르티코스테론이 크게 증가하면서 해마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신경세포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워싱턴UPI=연합뉴스

사랑의 밀어, 왼쪽 귀에 속삭여라

사랑의 밀어는 왼쪽 귀에 대고 속삭여야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미국 텍사스의 샘 휴스턴 주립대학 연구진이 11일 밝혔다.

이 대학 연구진이 감성적인 말들을 녹음해 왼쪽 귀와 오른쪽 귀를 통해 들려주는 실험을 한 결과 사람들은 왼쪽 귀를 통해 들은 말들을 더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100명에게 녹음된 내용을 들려주고 내용을 글로 적도록 한 실험에서 오른쪽 귀로 밀어 들은 경우 58명이 그 내용을 정확히 적어냈으나 왼쪽 귀로 들은 경우에는 70명이 제대로 받아 적었다며 이는 왼쪽 귀가 감정 조절에 관여하는 우뇌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경과학자 심 터우송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는 왼쪽 귀와 연결되어 있는 우뇌가 감정을 인식하는 일에 더 적합하다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텍사스주립대학UPI=연합뉴스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수석합격자배출 13,14회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학원

◆"서울"새롬행정고시학원 광주 상륙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전문학원(전국 25개 학원 체인)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TV방송출연 교수진/저자직강★

개강 3월 2일 첫진도 시작반(주간반,야간반) •재직자 무료 수강생 야간반 60명 선착순 모집

합격률1위! 새롬 행정고시학원 ☎361-8111 서구청앞(농성동)

희소식 수료 **한글과정**

기장주부 실업자 지방취업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수강료 환급
출석률 80%이상시 수업료의 50%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무관

전국 최강의 강사진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유명 출판사 저자 직강

탁월한 합격 시스템
●출결관리 ●학습 성취도에 따른 개별 분석지도
●자습실, 사물함 무료 사용

합격률 1위 A+ 현대고시학원 236-2467~8 (동부경찰서 앞)

국가직/ 지방직 시험대비 www.mdgosi.co.kr

무료문제풀이 개강 3월 2일 = 야간반 진행 =

• 100% 출석시, 수강료 100% 환불 • 문제풀이 수강료: 100,000원

김중규 행정학 문제풀이 특강
300명 선착순 접수, 수강료 60,000원 (개강: 2007년 4월 5일(목), 4월 12일(목) 16:00~22:00), 교수-김중규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 222-4560

누구나 합격강의

9월 공무원 시험 특강

| | | | |
|-------|-----|-----|------------|
| 국가직 | 행정직 | 세무직 | 교정직 |
| 광주·전남 | 농업직 | 소방직 | 공채: 4월 14일 |
| 서울지방직 | 경찰직 | 기술직 | 특채: 3월~5월 |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맞은편 ☎222-5105

중개사 전문강의의 17년!!

공인중개사 특강

20명 정원 소수정예반

1:1 교육방식, 자습실 이용

서울에서 초빙 일류교수진

- 공법·권철
- 민법·윤철환
- 부동산학·김범
- 공시법·윤철환
- 세법·유영
- 법령·실무·김봉역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맞은편 ☎222-5105

공시생들에게 가장 주목받는 한빛 - www.hanbitgosi.co.kr

2007 국가직/ 지방직 대비 **공무원**

개설과목: 행정직, 교육행정직, 사무직, 법집행, 검찰직, 사법부직, 군무원, 출입국관리, 교정, 농업직, 전신직, 기술직

일교정직특채 800여명 2007년 상반기

한빛문제풀이 한빛이 하면 다 해결!

한빛공무원학원 개강 3월 2일 (총/박수만 매일 첫진도 개강)

북구청 건너편 전남대 후문앞 ☎234-0234